

김민석 국무총리, 에너지 안보 및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1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너지와 과학기술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에너지 안보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 (참석) 이경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윤의준(한국공학한림원 회장), 홍성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병탁(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를 수행
- 이번 간담회는 중동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과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과학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그간 정부는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흔들림 없는 성장을 이어가도록 과학기술 기반 혁신을 주요 정책과제로 두고 에너지 안보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역할을 당부하였다.
-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전문가 3인의 발제를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 체계, 데이터 기반 연구환경, 에너지 혁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참석자들은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연구개발 혁신 체계를 마련하고,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공공 연구개발 데이터를 AI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자산화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 또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에너지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이용 가능한 모든 에너지를 발굴하여 활용하는 중장기 비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의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접근방식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 김 총리는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정부 정책추진 과정에 참고하겠다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 앞으로도 김 총리는 주요 분야별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과 깊은 대화의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대길 (044-200-2248)
		담당자	서기관 이도연 (044-200-2249)

